

▶ 정의

의미	•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구분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형법)
	령(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폭넓게 규정한 행정 위주의 법률(행정법)

▶역할 : 넓은 지역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치 기준

▶ 성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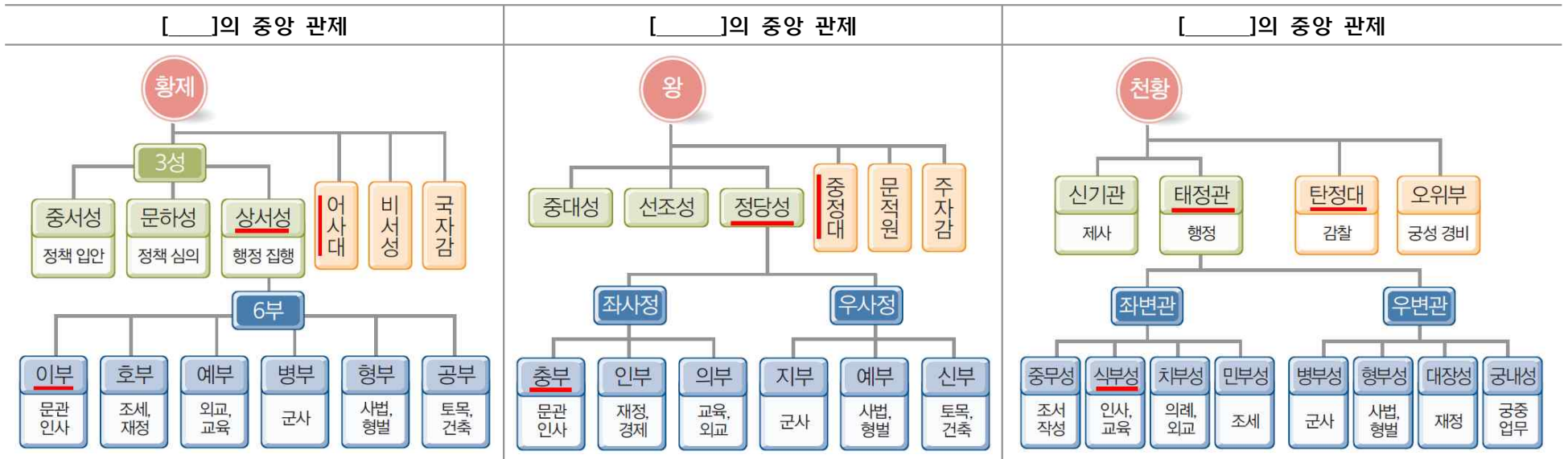
춘추 전국 시대	• 율이 성문화(형법 중심의 법전), 진(秦)의 상앙(? ~ 기원전 338) 등 법가 사상 활약	
진(秦)	• 이사(? ~ 기원전 208) 중용 → 법치에 입각한 엄격한 상벌 통치	
한(漢)	• 무제(㉞, 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 동중서의 건의 →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 (기원전 136), 태학 설립, 오경박사 설치	
	•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는 생각과 가족 및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가 함께 율령에 반영 ✓ 가부장적 질서와 신분 질서, 연장자에 대한 우대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율령에 포함	
위(魏)	• 관리 등용 방식으로 9품(品) 중정제 실시 →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	
진(晉)	• 율령에서 처음으로 율(형법)과 령(행정법)을 분리	
남북조(南北朝) 시대	• 북위(386 ~ 534) - 균전제(485) , 삼장제(三長制, 인장·이장·당장, 486), 조·용·조 를 실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율령 제정	
수(隋) · 당(唐)	특징	• 율령에 격(格, 율령 추가·보완)과 식(式, 구체적 시행 세칙) 추가
	중앙	• 3성 (중서성·문하성·상서성, 황제의 통치 보좌) 6부 (상서성 산하, 행정 업무 담당)
	지방	• 주·현 설치, 토지 분배와 과세·징병 등을 위해 호적 작성 (3년 주기)
	관리 선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 시행 (587) ✓ 귀족 세력의 견제와 황제권의 강화
	교육 기관	• 국자감 (중앙, 오경 등 유교 경전 교육), 문묘(공자 배향)
	경제	• 균전제 (영업전 + 구분전), 조(租)·용(庸)·조(調) 의 수취 체제
	군사	• 부병제 (府兵制) → 농민의 병역 의무, 국가 상비군 제도

▶인빈도

삼국 시대	고구려	• 대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백제	• 율령 반포(260), 관인수재죄(262), 오경박사, 의박사·역박사
	신라	• 율령 반포(520), 골품제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 집사부 이하 13관부, <u>9주 5소경</u> , 국학(682), <u>독서삼품과</u> (788), 관료전(687), 정전(722), <u>민정문서</u> (815년 경)
	발해	• <u>3성</u> (정당성·선조성·중대성) <u>6부</u> (총·인·의부 : 지·예·신부), 5경 15부 62주, <u>주자감</u> , <u>문적원</u> (도서와 문서 관장)

▶일본

다이카 개신	645	• <u>나카노오에 황자</u> , 소가 씨 제거,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당(唐)의 율령 체제 수용[<u>반전수수제</u> (구분전 지급, 652)]	
다이호 율령	701	중앙	• <u>2관</u> (태정관·신기관) <u>8성</u> (좌변관·우변관), 대학료(大學寮)
		지방	• <u>국</u> (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u>군</u> (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 - <u>리</u> (里)
		감찰	• <u>탄정대</u> (彈正臺)
요로 율령	757	• 제정(712) → 『영의해(令義解)』(833)	



▶ **과거제의 발전**

중국	수	• 과거제 시작 (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관리 후보 선발, 587)
	당	• 과거제의 제도화, 이부(吏部) 주관
	송	•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殿試) 제도 정례화 • 사대부의 성장
한반도	고려	• 광종(㉔, 재위 949 ~ 975) 때 쌍기(후주 출신인 귀화인)의 건의로 실시(958)
	조선	• 문과, 무과, 잡과 실시 → 문반·무반의 양반 관료 체제의 형성

▶ **과거제의 영향**

: 새로운 학자 관료층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의 강화

- 고구려 태학
- 신라 국학
- 발해 주자감
- 일본 대학료

지문 확인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① **당 대의 율령(『금성·비상 교과서, 수능 특강』, p.57·65·52)**

〈교육기관〉

- 당률은 이전 왕조에 비해 형벌을 간략화(5종 형벌)하였다. 태형과 장형의 매의 수를 줄이고, 참형을 삭감하여 유형 92조를 만들었으며, 유형을 삭감하여 도형 71조를 만들었다.
 - 남편이 죽고 상복을 벗더라도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자의 조부모나 부모가 아니면서 억지로 혼인시킨 자는 도형(강제 노동형) 1년에 처한다.
 - 무릇 주인이 부곡을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에 처한다. 고의로 죽였다면 1등을 더한다. 그러나 (부곡이) 잘못을 범하여 처벌하다가 죽었거나 과실로 죽였다면 각각 논죄하지 않는다.
 - 무릇 조부모나 부모에게 욕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구타하였다면 참수형에 처한다. …… 자손이 가르침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조부모나 부모가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 『당률소의』

② **송 대의 과거(『비상 교과서』, p.70)**

한림학사 이방은 사사로운 정을 개입시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였다고 제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최종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사람 360명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 뒤, 그들을 소견하고 195명을 선발하였다. …… 그리하여 전시(殿試)가 통상의 제도로 되었다.

- 송사, 『선거지』

율령 - 통치 규범(법 : 형법 + 행정법) + 유교

• 중국

(하·상·주) ~ 춘추전국시대 ~~~~~ 진 ~~~~~ (진승·오광의 봉기) ~~~~~ 한(전한 → 신 → 후한) ~ (위촉오) → 서진 ~~~~~ 수 ~~~~~ 당(618 ~ 907 : 절도사, 황소의 난)

- 부국강병
- 제자백가 (유가·도가·묵가·법가)
- 상앙 BC. 209 ~ BC. 208
- 한비자
- 진시황제 ~ 이사 : 통일
 - 군현제, 관료제, 법가
 - 문자·도량형(행정, 조세)
 - 토목 : 도로, 만리장성
 - 순행 : 남야대 각석
- 재통일 + 유교의 천명사상
- 무제
 - 동중서, 유교 통치 이념 건의
 - 태학, 오경박사, 공자 사당
 - 법가 + 유가 ⇒ 천자
 - 향거리선제(효, 청렴) 확대 실시
- 율(형벌)
- 령(행정)
 - 남북조 통일
 - 3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 호적제
 - 대운하
- 율령·격·식 체제 완성
- 당률(태·장·도·유·사) → 신분·유교 윤리
- 3성 6부 : 중서성·문하성·상서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9품의 관리 등급
- 균전제 : 호적(3년), 평민 성인 남자
- 조세 : 조(토지)·용(부역)·조(호별 남자)
- 부병제
- 수도 장안성(국제적)
- 외래 종교 : 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 한반도

삼국 ~~~~~ 통일 신라 ~~~~~ + 발해 ~~~~~ 고려

- 고구려 : 소수림왕, 율령(373), 태학(372)
- 백제 : 고이왕, 율령(260), 오경박사
- 신라 : 법흥왕, 율령(520)
- 중앙 : 14부(행정), 사정부(감찰), 17관등, 골품제
- 9주 5소경, 민정문서
- 국학(← 당 국자감 영향, 682)
- 독서삼품과(788)
- 한자, 이두 사용
- 중앙 : 3성 6부(당 영향, 독자적 운영, 유교적 명칭)
- 지방 : 5경 15부 62주
- 주자감(← 당 국자감의 영향), 문적원(서적 관리)
- 독자적 연호(인안, 대흥, 건흥)
- 고구려 문화 계승(온돌, 모줄임 천장 구조)
- 2성 6부, 9품 16계
- 국자감, 어사대
- 과거제(광종, 958)
- 왕실 내 근친혼

• 일본

아스카 시대 → 다이카 개신(645) → 다이호 율령(701) → 나라 시대(710 ~ 794)

- 592 ~ 710
- 호류사 창건(607)
- 국왕 중심 → 중앙 집권 체제
- 나카노오에 황자, 당 유학생 → 소가씨 제거
- 당(唐) 율령 체제 모방 → 정치 개혁
- 반전수수제(652) → 구분전 지급
- 중앙 : 2관 8성제[당 3성 6부 영향, 신기관(제사), 태정관(행정), 중무성·식부성 등 8개 부서]
- 지방 행정 단위 : 국(國, 고쿠) - 군(郡, 리) - 리(里), 군의 관리(호족 임명 → 중앙 파견 No!)
- 하급 관료 선발 시험 존재 → 과거제 시행 No!
- 근친혼 인정, 모계 중시, 친족제 영향

덴무 덴노(天武天皇, 재위 672 ~ 686) 10년(681)에 덴노와 황후가 같이 대극전(大極殿, = 태극전)에서 친왕과 여러 왕 및 신하에게 조서를 내려 “짐은 이제부터 다시 율령을 정하여 법식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같이 이 일을 수행하라.” 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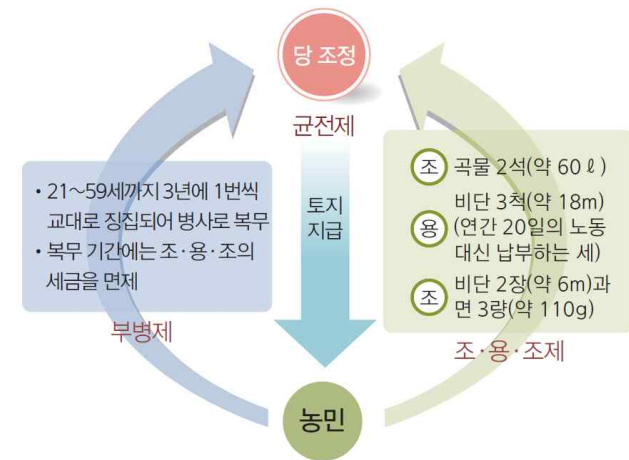
- 『일본서기』

개념 Check

- ① 진의 시황제는 이사 등 () 사상가를 중용하였다.
- ② 진(秦)은 가혹한 법가적 통치에 반발한 ()·()의 난 등의 영향으로 멸망하였다.
- ③ 한 대의 유학자 ()는 인간 사회의 차별적 질서가 하늘(天)에 의해 결정되며, 천자의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동중서의 견의를 받아들인 한의 ()는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두었다.
- ⑤ 한 대에는 () 사상이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부상하였다.
- ⑥ ()은 한 대에 법가적 원리인 법치와 강제성, 유가적 원리인 도덕과 자발성이 결합하여 성립되었다.
- ⑦ 남북조를 통일한 () 왕조는 3성 6부제, 과거제 등을 실시하였다.
- ⑧ 수는 () 건설과 고구려 침공에 따른 백성의 불만이 폭발하여 멸망하였다.
- ⑨ 율령 체제는 형법인 (), 행정법인 (), 추가·보완한 법령인 (), 시행 세칙인 ()으로 나누어진다.
- ⑩ 당의 수도 ()에서는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⑪ 당 대에 완성된 율령 체제 아래에서 형벌은 (),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 ⑫ 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를 실시하였다.
- ⑬ 당은 ()의 규정에 따라 중앙에 ()를 두고, 지방에 주·현을 두었다.
- ⑭ 당은 지방에 공자를 모시는 ()를 세우도록 하여 유교 이념을 널리 보급하였다.
- ⑮ 당에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에게 부과하던 수취 제도는 ()이다.
- ⑯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당의 국자감을 본뜬 ()을 세우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 ⑰ 신라는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를 시행하여 관리 선발에 활용하였다.
- ⑱ 통일 신라는 9주 5소경 제도를 확립하고 조세 징수를 위한 ()를 작성하였다.
- ⑲ 발해는 (), (), 중대성의 3성을 운영하였다.
- ⑳ 발해는 ()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고 각각 3부씩 나누어 관리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 ㉑ 발해는 서적 관리 및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을 설치하고, 중앙 국립 교육기관으로 ()을 설립하였다.
- ㉒ 645년 일본에서는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한 ()이 단행되었다.
- ㉓ 일본에서 율령 반포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은 제사를 담당하였다.
- ㉔ 일본은 당의 율령제를 수용하여 701년에 () 율령을 반포하였다.
- ㉕ 일본에서 좌변관 산하의 중무성은 조칙의 문안 심사, ()은 인사·교육, ()은 의례·외교, 민부성은 조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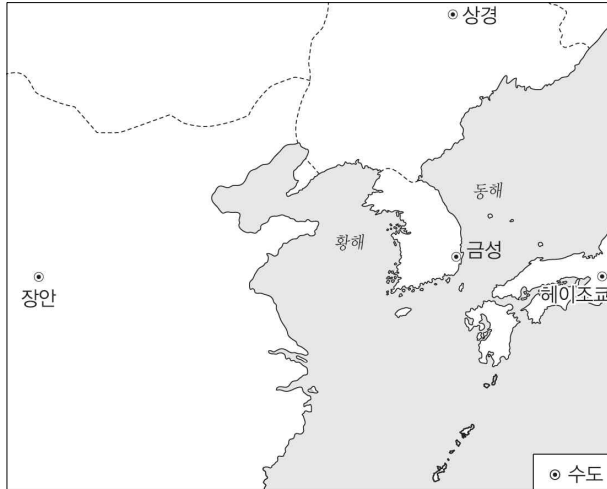


〈한(漢) 대의 율령〉



〈당의 토지·수취·군사 제도〉

▶ 지도의 형세가 나타낸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사를 준비하는 신기관의 관리
- ② 동중서에게 명령을 내리는 황제
- ③ 백강 전투에 참전하는 왜의 군인
- ④ 적산 법화원에서 불공을 드리는 승려
- ⑤ 태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고구려의 귀족

▶ (가) 국기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②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을 두었다.
- ③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④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 ⑤ 중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 불교의 성립

기원전 6세기	• 인도에서 참시,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			
기원전 5세기	부파 불교	• 석가모니 사후 교리상의 문제로 여러 부파로 분열		
		• 상좌부 불교(출가자 중심, 소승 불교)가 가장 발달		
기원전 1세기	대승 불교	성격	• 재가자(일반 신도) 중심, 이타행(利他行) 강조 •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에 의한 중생구제 강조 , 보살(菩提薩埵) 개념 사용	
		구분	교종	• 교리 연구, 부분적 지식의 축적 강조
			선종	• 달마(? ~ 528) 참시, 참선 중시
기원후 6세기	밀교	• 대승 불교의 한 갈래로 등장, 힌두교의 주술적 요소 수용, 인간의 세속적 요구 존중, 만다라와 다라니 • 티베트, 신라, 일본 등에 전파		

▶ 불교의 전파

중국	후한	• 중앙아시아를 통해 대승 불교 수용(67)	
	5호 16국	• 유목 민족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화북 지역에 확산 •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	
	남북조 시대	•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 원강 석굴 사원(평성, 460) , 룡먼 석굴 사원(493 ~)	
한반도	삼국	고구려	• 전진, 순도, 372년(소수림왕 2)
		백제	• 동진, 마라난타, 384년(침류왕 1)
		신라	• 고구려, 묵호자, 457년(눌지 마립간 41) ⇨ 521년 ⇨ 이차돈의 순교와 공인, 527년(법흥왕 14)
일본 열도	• 백제, 노리사치계 , 552년(성왕 30) • 토착 신앙(신토)과 갈등 → 일부 호족들의 보호 속에 보급되기 시작		



▶종국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현(337 ~ 422), 서역·인도 등지를 여행하고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 달마(? ~ 528), 참선 중시의 선종 창시
당(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602 ~ 664)의 인도 기행(629 ~),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대안탑(大雁塔) 조성(645),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저술(646) • 감진(688 ~ 763), 8세기 후반 일본행, 도다이지(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 각 나라에서 불교 유학 → 의상(625 ~ 702), 다이타당(= 대승당), 혜초(704 ~ 787), 언닌(794 ~ 864) 등
송(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토종 유행, 선종(禪宗) 발달 → 성리학 성립에 영향
원(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마교 → 국교화

▶인반도

통일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효(아미타 신앙, 617 ~ 686), 의상(아미타 신앙·관음 신앙, 625 ~ 702) 등의 활약으로 불교의 대중화 • 하대 → 호족의 지원으로 선종(禪宗)의 유행
-------	--

▶일본

아스카 시대 (592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수용을 둘러싼 내전(신토 ⇄ 불교) ✓ 불교파의 승리 → 신불습합(神佛習合) 표방 • 쇼토쿠 태자(574 ~ 622) ✓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호류 지(法隆寺, 법릉사, 601 ~ 607) 등 왕실과 유력 가문의 후원을 받은 사찰 건립 → 아스카 문화 • 전방후원분(4 ~ 6세기) 쇠퇴
나라 시대 (710 ~ 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쿠분 지(國分寺, 천황의 사찰)의 전국 설립 • 쇼무 천황(聖武天皇, 재위 724 ~ 749), 도다이지(東大寺) 노사나불(盧舍那佛) 건립의 조(詔, 743 → 752), 도다이지 창건(745) • 당(唐) 승려 감진(688 ~ 763)의 활약
헤이안 시대 (794 ~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닌(794 ~ 864),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唐) 입국, 법화원(法華院)에서 기숙(寄宿) →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저술 • 주술과 기도를 중시하는 밀교(密敎) 확산, 무사들에 의해 선종(禪宗) 확산
가마쿠라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불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믿는 대중적인 불교 등장과 무사 사회에서 선종의 유행

▶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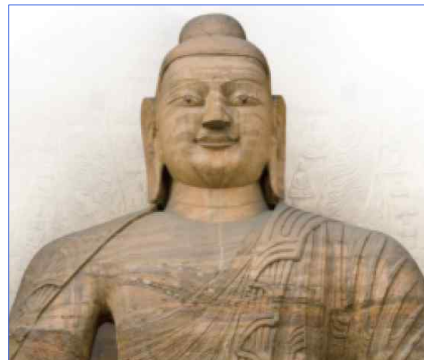
국가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실은 군주가 곧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킴 •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건립하여 군주의 권위와 신앙심 표출 		
	✓ 중국 북조의 대형 석굴 사원, 일본 나라 시대의 고쿠분 지(國分寺), 신라의 백고좌 강회(『인왕경』 강론), 고려 시대 대장경 간행		
구원 신앙	•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아미타불 → 경배의 대상		
신분 제도 인정	• 업설(業說), 신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고통을 합리화		
불교문화	• 탑 [전탑(중국), 석탑(한반도), 목탑(일본)], 불상, 목판인쇄술[『무구정광대다라니경』(신라), 『백만탑다라니경』(일본), 『팔만대장경』(고려)]		
토착화	중국	• 유교와 결합, 『 부모은중경 』[당(唐)], 유교적 장례 의식과 결합, 무덤 간소화	
	한반도	신라	• 의상을 도운 용 → 용신 신앙(龍神信仰)
		고려	• 산천이나 용을 섬기는 토속 신앙과 불교를 결합한 팔관회 가 국가 행사로 개최
	조선	• 사찰 내에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건립	
일본	• 신토(神道, 전통적 신앙)와 결합 , 신토의 토착 신이 불교 수호(하치만 신상)		
구빈 활동	중국	• 무진장(無盡藏, 사원에 설치된 금융기관, 남북조 시대 이후)	
	한반도	• 장생고(長生庫), 제위보(濟危寶)	
	일본	• 교묘 왕비의 비전원(悲田院, 고아·병자 수용)·시약원(施藥院, 병자 치료) 설치(730)	

-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불경을 거듭 펴라. 그 공덕으로 부모가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 당(唐), 『_____』

- _____이(가) 일찍이 여러 촌을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이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부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외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 불교의 _____



〈원강 석굴 대불〉



〈석굴암 본존불〉



〈하치만 신상〉

강승회	? ~ 280	소그디아나	• 불경 번역(베트남), 남중국 오(吳)에서 활동(손권의 불교 귀의)
[____]	337 ~ 422	남조 동진	• 인도 순례,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____]	? ~ 528	남조 양	• 인도 승려, 선종 창시
혜자	? ~ 622	고구려	• 595년 도일 → 쇼토쿠 태자(574 ~ 622)의 스승, cf) 백제의 혜총
담징	579 ~ 631		• 불교 교리와 붓·먹·제지술 등의 일본 전파, 호류 지(法隆寺) 금당 벽화
[____]	602 ~ 664	당	• 인도 순례(육로, 629 ~), 대안탑 조성(645), 『대당서역기』 저술(646), 『서유기』의 주인공
의정	635 ~ 713		• 현장의 제자, 다이탕당(大乘堂)과 함께 인도 순례(해로, 671 ~), 『남해기귀내법전』 저술
[____]	688 ~ 763		• 753년 일본행[양저우 ⇨ 다자이후 ⇨ 나라(754), 실명(失明)] • 고쿠분 지의 총본사인 도다이 지(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불경·약품 등 전래
다이탕당	7 ~ 8C	베트남	• 당(唐) 유학, 현장의 제자
[____]	617 ~ 686	통일 신라	•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판비량론』 등 현장 교리 정리 → 당(唐), 일(日) 불교계에 영향
[____]	625 ~ 702		• 당(唐) 유학, 부석사 건립, 화엄종 개창(『화엄일승법계도』),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 관음 신앙)
[____]	704 ~ 787		• 인도 도착(바닷길, 723), 『왕오천축국전』 저술(727), 인도 승려 금강지로부터 밀교(密敎) 학습
도의선사	8 ~ 9세기		• 당(唐) 유학, 남선(南禪) 수용(821), 9산 선문 융성
[____]	794 ~ 864	일본	• 당(唐) 유학, 장보고의 산둥 반도 적산 법화원(法華院) 기숙,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 ~ 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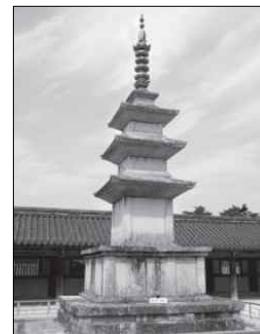
대안탑(645)



미륵사지 석탑(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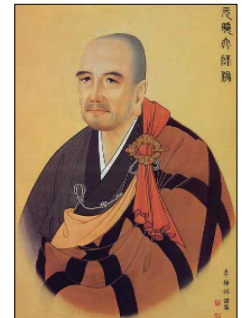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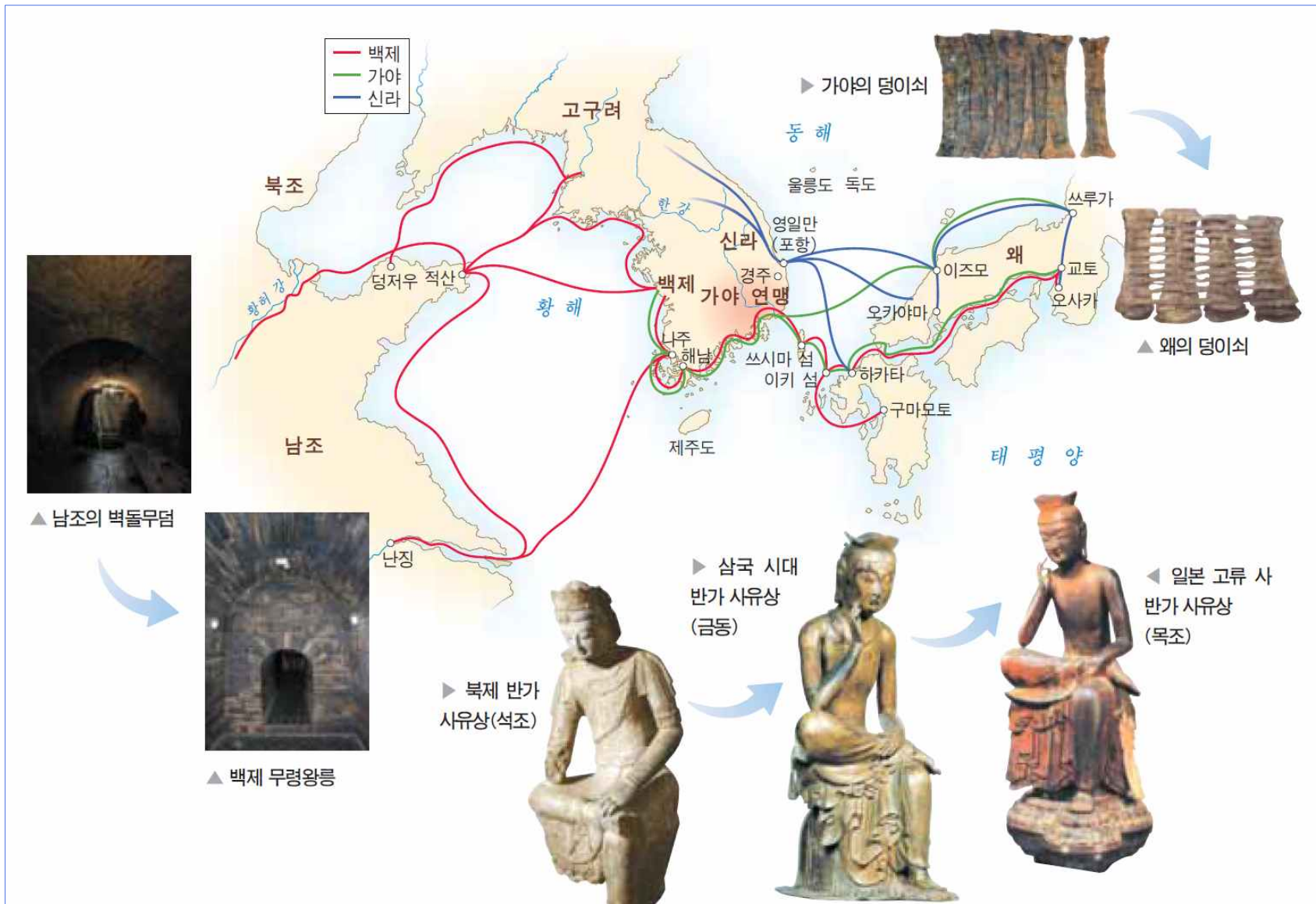
호류 지 5층 목탑(7세기)



석가탑(751)



도다이 지 금당(= 대불전, 752)



〈원호(617 ~ 686)〉



〈현장(602 ~ 664)〉

① 불교의 전파와 수용(『금성 교과서』, p.61)

- **법흥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 (신하들이)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왕의)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이 아뢰기를, “제 목을 베어 여러 사람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 목을 베자 ……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 백제 **성왕** 때, 태자상(석가모니상) …… 등을 보내고 …… 천황이 받고는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 써야 하겠는가,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 라고 말했다. 신하들은 “우리 국신(國神)의 마음을 거스름까 두렵습니다. …… 다른 나라 신(부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다만 소아대신 도목숙네(蘇我大臣稻目宿禰, 소가 씨) 홀로 “다른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 이에 그곳(모구원 후궁)에 두고 모시기 시작하였다. - 『원흥사연기』

② 신라 백고좌 강회(『천재·비상 교과서』, p.71·72)

3월에 (선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좌(百高座) 강회를 열어, 승려를 모아 『인왕경(仁王經)』을 강론하게 하고, 1백 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③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비상 교과서』, p.72)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천재·금성 교과서』, p.74·67)

- 귀하를 직접 뵈 적은 없으나 높은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 더욱 깊어만 갑니다. ……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에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적산으로 돌아와서 청해진에서 (방향을) 바꾸어 본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장대사(장보고)를 뵈고 자세히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 만일 그곳(청해진)으로 사람과 배가 왕래한다면 청하옵건대 명령을 내려 특별히 찾아봐 주십시오. 승들의 귀향은 오로지 (압아의) 크나큰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

- BC. 6세기 창시
 - 석가모니 = 부처(붓다)
 - 붓다 = 진리 깨달은 이
- 인과응보·윤회전생·해탈·자비·평등
 - 승가공동체
 - 부파 불교
 - ① 상좌부 : 계율(보수적)
 - ② 대중부
- 대승 불교(BC. 1세기)
 - ① 재가자(일반 신도) 중심
 - ② 석가모니 신격화
 - ③ 자비 → 중생 구제
 - ④ 보살 개념(ex. 관세음보살)
 - ⑤ 반야경, 화엄경
 - ⑥ 정토 신앙(민중적) : 극락 ←
 - ⑦ 동북아시아 전파
 - ⑧ 7세기 밀교 : 주술, 만다라
티베트, 日 전파
- 스투파 : 탑
 - ↳ 부처 무덤(석가모니 사리)

중원

- AD. 67, 중국 전래(비단길)
- 위·진·남북조 시대 → 확산
 - : 삼국(위·촉·오) - 불경 번역, 토착신앙과 융합
 - : 5호 16국 - 적극 수용
 - 민족적 편견 無
 - ↳ 후조(갈족 - 석류) : 이민족 출신
 - *전진 : 둔황 석굴사원(366 ~)
 - 북조 : 북위(선비족) : 원강 · 룡먼 석굴사원
 - ↳ 균주 = 부처, 460
 - 동진 : 법현, 「불국기」(인도 순례, 416)
 - 양 : 무제(황제 보살), 백제와 교류
- 남북조
 - 선종 : 달마, 직관과 참선 강조
 - 무진장 : 기부금, 서민 대출
- 당(唐)
 - ① 「부모은중경」 : 효 강조, 유교 융합
 - ② 현장, 「대당서역기」(인도 순례, 646)
 - ③ 대안탑 : 현장, 불경 보관, 벽돌탑(전탑), 645
 - ④ 감진(688 ~ 763) : 日 → 계율, 불상, 불경, 약품
 - ⑤ 정토정, 법상종, 화엄종, 진언종 등

한반도

- 고구려 : 소수림왕 수용, 전진, 순도, 372
 - 혜자(소토쿠태자 스승, 595 ~)
 - 담징(일본, 교리 전수, 610)
- 백제
 - ① 침류왕 수용, 동진, 마라난타, 384
 - ② 남조에서 경전 수입 → 일본 전파
 - ③ 익산 미륵사지 석탑
- 신라
 - ① 눌지마립간 수용, 고구려, 457
 - ②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와 공인, 527
 - ③ 거칠부 → 고구려 승려 혜량의 제자
- 통일 신라
 - ① 원효 : 정토신앙 보급(나무아미타불)
 - : 『판비량론』 → 당(唐), 日(日)에 영향
 - ② 의상(625 ~ 702) : 당(唐) 유학, 화엄종 개창
 - ③ 혜초(704 ~ 787) : 당(唐) 유학, 밀교 학습
 - : 『왕오천축국전』(727)
 - ④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751)
 - ⑤ 도의 : 선종 도입(821) → 호족의 지원, 확산
- 토착화 : 용신 신앙(신라), 팔관회(고려)
 - : 산신각·칠성각(조선)
-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 이두

일본

- 백제의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552)
 - : 초기 수용을 둘러싼 대립
 - : 내전과 신불융합(하치만 신상)
- 아스카 문화
 - 백제 영향, 왕실·유력 가문 후원
 - 호류 지 5층 목탑, 백제 관음상
- 나라 시대(710 ~ 794)
 - ① 고쿠분 지(구니 사찰, 쇼무 덴노)
 - ② 도다이 지 대불(743 → 752)
 - ③ 도다이 지 낙성식(745)
 - : 唐(도선), 印(보리선나), 참파(불철)
- 헤이안 시대(794 ~ 1185)
 - : 밀교 발달
 - : 엔닌, 당 유학(청해진 → 적산 법화원)
- 가마쿠라 막부 시대(1185 ~ 1333)
 - : 선종·정토 신앙 발달 → 대중적
-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 : 가나(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 표기)

▣ 불교의 확산과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승려들은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고 한자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吏讀)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도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가 만들어졌다.

개념 Check

- ① ()의 교리에는 인과응보, 윤회전생, 수행을 통한 해탈,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② 기원전 1세기경 재가자를 중심으로 이타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 불교가 출현하였다.
- ③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인 527년 ()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 ④ ()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가 일반 민중에까지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 ⑤ 일본 나라 시대에는 도다이 지(東大寺)를 비롯한 국가 사찰인 ()가 각지에 설립되었다.
- ⑥ 중국에서 불교가 유교와 결합하면서 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하는 경전인 『 _____』이 간행되었다.
- ⑦ 일본에서 불교는 고유의 종교인 신토와 결합하였는데, 이를 ()이라고 한다.
- ⑧ 고구려 승려 ()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⑨ 신라의 ()는 인도를 순례하고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⑩ 신라 하대 호족의 지원으로 참선과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 유행하였다.
- ⑪ 당(唐)의 승려 ()은 753년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파하였다.
- ⑫ ()은 8세기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 ⑬ 견당선을 타고 온 일본의 승려 ()과 제자 일행은 개성 4년(838) 6월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오대산을 비롯한 여러 성지를 돌아보고자 하였다.
- ⑭ 10세기 이후 송, 거란, 금이 각각 ()을 만들었으며, 고려도 여러 차례 ()을 만들었다.



<혜초의 순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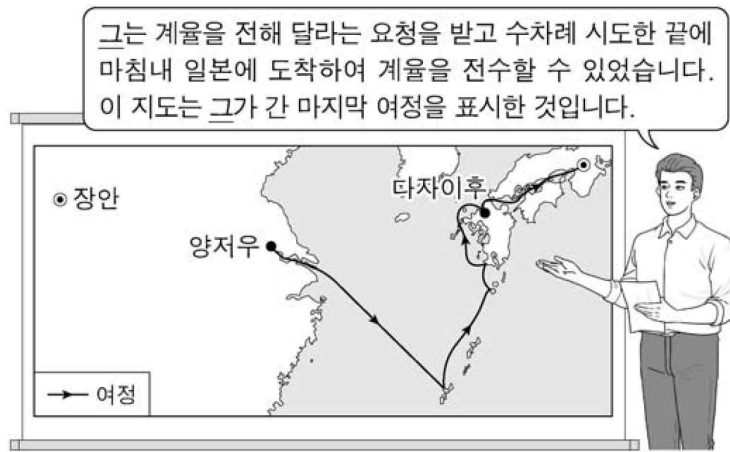
▶ 밑줄 친 ‘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사는 석장을 손에 쥐고 인도로 출발하였다. …… 그곳에서 많은 경전을 모조리 음미하고, 모든 불적을 하나도 빠지 않고 조사하면서 각지를 돌아다니기 수년, 겨우 귀로에 올라 정관 19년 정월, 장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입수한 경론이 6백 57부, 법사는 황제의 명으로 이를 번역하였다.
- 법사는 절의 단문 남쪽에 대안탑을 세워 서역에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을 안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본이 분실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화재로 인한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탑의 기단 4면은 각각 140척인데, 서역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국의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탑은 5층으로 되었고, 높이는 180척이나 되었다.

- ① 일본에 계율을 전파하였다.
- ②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③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하였다.
- ④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⑤ 불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불국기』를 썼다.

사명감 중만!!!

▶ 밑줄 친 '그' 가 활동한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강승회가 베트남에서 많은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 ② 원강 석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 ③ 혜자와 혜총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④ 신라에서 선종이 널리 성행하였다.
- ⑤ 쇼무 덴노의 명으로 도다이지(東大寺)가 건립되었다.

▶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음 자료의 조서가 내려진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덴표 16년 쇼무 덴노가 조서를 내렸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널리 중생을 구하고 싶은 염원을 담아 노사나불 금동상 1구를 만들고자 한다. 온 나라의 구리를 모두 모아 불상을 주조하고 큰 산을 깎아 불당을 세우고 불법을 널리 세계에 펼쳐 집의 불법 수행 동지로 삼고 싶다.”

<보기>

- ㉠ 외적과 싸우는 고구려 군사
- ㉡ 도호부(都護府)로 파견되는 당의 관리
- ㉢ 소가 씨 가문 타도를 모의하는 관리
- ㉣ 정치를 논의하는 발해 정당성의 관리

- ① ㉠, ㉡
- ④ ㉡, ㉣

- ② ㉠, ㉢
- ⑤ ㉢, ㉣

- ③ ㉡, ㉣

Check!

도다이지 대불전과 대불



키 16.2m, 얼굴만 5m, 무게가 3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불상이다. 쇼무 천황의 조(詔, 743)를 바탕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752년에 완성·개안(開眼, 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음)되었다. 담담하지만 자비로운 표정으로 오른손은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은 무릎에 살포시 올려놓은 모습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엄청난 국책 사업이었던 불상 제작에는 한반도 도왜인(渡倭人)의 후손인 최고 장인들의 기술력이 응집됐다.

제자백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재[인(仁) 강조], 맹자[의(義) 강조, 성선설], 순자[예(禮) 강조, 성악설]
훈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없어진 경서의 복원·해석을 중시하는 해석적 유학, 5경(『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중시 • 한(漢) 대 : 동중서의 제안으로 무제 때 관학의 지위(통치 이념 역할) • 당(唐) 대 : 공영달의 『오경정의』 완성(고종, 653) → 훈고학 집대성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남송(1127 ~ 1279) 대 주희(1130 ~ 1200)의 완성 •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철학적 유학 • 『근사록(近思錄)』(주희, 1175) → 성즉리(性卽理), 이기론(理氣論) 중시, 거경궁리(居敬窮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5경보다 4서(『논어』·『맹자』·『대학』·『중용』) 중시 → 『사서집주(四書集注)』(주희, 1177) • 군신 간의 의리, 대의명분 중시 → 화이론 강화,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 중국·조선 → 정치 윤리이자 사회 윤리,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소학(小學)』의 보급, 서원의 건립(백록동 서원)과 향약(鄉約) 실시
양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송(南宋)의 육구연이 심학(心學) 강조 • 명(明) 대 왕수인(= 호 ‘양명’, 1472 ~ 1528)의 완성, 실천적 유학, 『전습록(傳習錄)』(1511) ↳ 심즉리(心卽理, 마음이 곧 이),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 강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 •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
실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明) 후기, 실사구시의 실용적 유학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고증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말 청초 고염무(1613 ~ 1673), 황중희(1610 ~ 1695)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대의각미록』(옹정제, 1729), 『사고전서』(건륭제, 1773 ~ 1782)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법적 유학, 강유웨이(1858 ~ 1927)·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신문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년 천두슈(1879 ~ 1942), 후스(1891 ~ 1962) 등이 『청년잡지(靑年雜誌)』 발간 ↳ 유교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배울 것을 주창, 『신청년(新靑年)』 발행(1916) → 1919년 5·4 운동의 사상적 바탕

중국	남송	서원(書院)	•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 → 사대부 결집에 영향
		향약(鄉約)	•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도 확산
	명		• 민간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
			• 『성리대전(性理大全)』(1415) 등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 편찬 →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사용 • 지배 계층인 신사 → 지역 여론 주도, 향촌 사회에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

한반도	고려	수용	• 안향(1243 ~ 1306), 원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 도입, 성리학 소개, 1290년(충렬왕 16)
		확산	• 만권당(1314 ~ 1320)에서 원(元)의 학자와 교류, 이제현(1287 ~ 1367)과 이색(1328 ~ 1396)의 활동 • 사서(四書)가 과거 시험에 포함, 신진사대부 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 사원과 권문세족의 횡포 비판
	조선		• 건국의 이념적 기반 , 국가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국조오례의』)와 사회 의례(『주자가례』)의 기준
			• 사림의 성장 → 향약의 보급(여씨 향약, 1517), 백운동 서원 건립(1543) →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 확산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이황(1501 ~ 1570)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성학십도』(1568) ✓ 이이(1536 ~ 1584) → 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 제시, 『성학집요』(1575) · 『격몽요결』(1577)
	• 철학적 논의 → 사단 칠정 논쟁(1559 ~ 1566), 인물성동이논쟁(18세기)		
	• 조선 후기 → 부모 삼년상, 장남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가묘와 사당 건립, 양자 제도 일반화, 친영(시집간다) 제도 확산		

일본	전래		• 가마쿠라 막부 후기 →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	• 원래 불교 승려 •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함 (1567 ~ 1618)과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1599)
		하야시 라잔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 ‘상하 정분(定分)의 이(理)’ 를 바탕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사회의 틀 강화(『삼덕초(三德抄)』 저술) • 성리학의 관학화 주도 , 에도 막부의 교육과 학문 관장
	한계		• 불교, 신도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함

① 성리학의 특징(『미래엔 교과서』, p.77)

- **성(性)은 곧 이(理)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다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근사록(近思錄)』
-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이(理)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늘이 그것을 얻어 하늘이 되고 땅이 그것을 얻어 땅이 되며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이 또한 각기 그것을 얻어 성(性)을 갖춘다.** …… **이처럼 만물에는 ‘이’가 흐르고 있으며 ‘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② 주희의 성리학(『천재·금성 교과서』, p.77·64)

- 『대학(大學)』은 공자가 남긴 글로서,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이다.** 곧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들의 글을 배우는 첫 번째 순서가 『대학』이며, 『논어』와 『맹자』가 다음이다. 『대학』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면 깨달음을 얻는 데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 성(性)은 본래 선한 것이니, 이(理)를 좇아 행하게 된다. …… 사람은 본래 이(理)를 가지지만 단지 기(氣)를 받아 물욕(物慾)에 가리어진다. 만약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가 앞에 이른다.)** 하지 않게 된다면 …… 거듭 실패하게 된다. …… 배우는 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궁리(居敬窮理, 내면적 집중과 엄숙한 태도에 머물며 이치를 궁리)** 두 가지에 있다.

③ 하야시 라잔의 『삼덕초(三德抄)』(『금성·미래엔 교과서』, p.65·80)

-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 관계 또는 전후 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禮)의 마음으로 꽉 채운다면 군신 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 예란 사람이 처신을 삼가 서열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한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고 천한 자가 위계가 높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다. ……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天地)의 예이다. **인간은 이 천지의 예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는 상하 전후의 순서가 이다.** 이 마음을 천지로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④ 양명학(『천재·미래엔 교과서』, p.81·77)

- **이치란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이 곧 이(理)이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조금이라도 밖에서 무엇 하나 가져와 보탬 것이 없다. 온전하게 천리를 따르는 이 마음이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 마음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토록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전습록(傳習錄)』

5 이황과 일본 성리학(『천재·금성 교과서』, p.79·68)

오사카에 서적이 많음은 실로 천하의 장관인데, 우리나라 여러 명현의 문집 중에서 왜인이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퇴계집(退溪集)』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곧 집집이 외우고, 모든 선비가 필담으로 물을 때 반드시 『퇴계집』을 첫째로 삼았다. 도산 서원이 어느 고을에 속하는지 묻는 이가 있었고 …… 또 선생 생전의 기호도 묻는 등, 그 말이 심히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 신유한, 『해유록(海遊錄)』

6 이이의 서원 향약(『천재·금성 교과서』, p.78·65)

1. 선행과 악행의 내용을 정해 두고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친구 간에 화목한 것, 이웃 마을과 화평한 것, 유교 윤리에 맞는 행동으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 …… 등이다.
8.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을 배우지 아니한 자는 모두 『소학』, 『효경』 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는 자는 벌줄 것을 논한다. - 『율곡전서』

7 성리학과 양명학

- 물(物)은 형(形)이고 칙(則)은 이(理)입니다. 형체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고 이치는 형이상자(形而上者)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실로 사물이 없을 수 없으니,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性命)의 바름을 따를 수 없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물에 나아가 지(知)를 구하고 이치를 구해야 합니다.
- 그는 『대학』의 격물(格物)을 ‘사물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해석하였으며, 『대학문』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또한 그는 사람이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 본원적인 도덕지(道德知)의 실현을 강조하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앎은 행위의 시작이고, 행위는 앎의 완성이다. 성인의 학문은 다만 하나의 공부이니, 앎과 행위를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없다. 성인의 학문은 지(知)와 행(行)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본래 하나인 구체적인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경(五經)보다 사서(四書) 중시 • 거경궁리와 격물치지를 통한 본성 회복 강조 •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수인이 대표적 학자 • 심즉리(心卽理) 강조 • 지행합일의 수행 방법 강조



중화 사상 송은 요·금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바쳐야 했다. 나아가 금이 회복을 차지하면서 송은 양쯔강 이남으로 쫓겨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중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주자라고도 불린다. 주희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가 '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서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원 대 이후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다.



송 대의 사대부 송 대 과거제가 확대되면서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대부는 서원과 향약을 보급하여 성리학을 확산시키고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운동 서원 성리학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16세기에 사림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약을 보급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적 윤리의 향촌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야시 리잔 임진 전쟁과 정유 전쟁 때에 조선의 유학자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고, 그의 제자인 하야시 리잔은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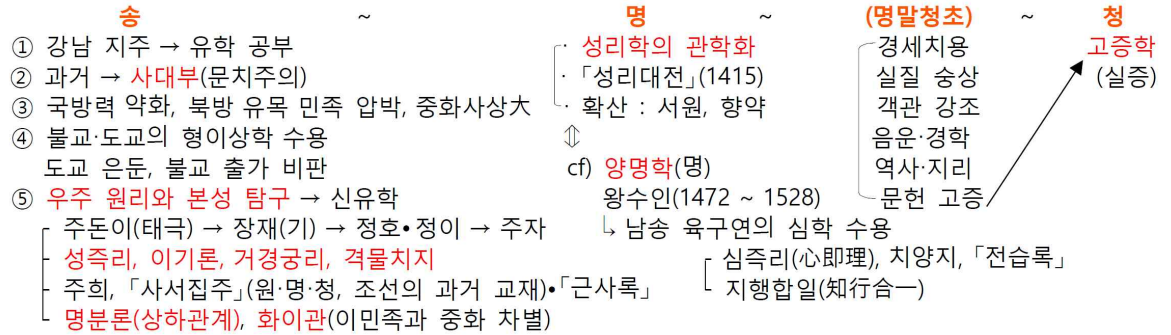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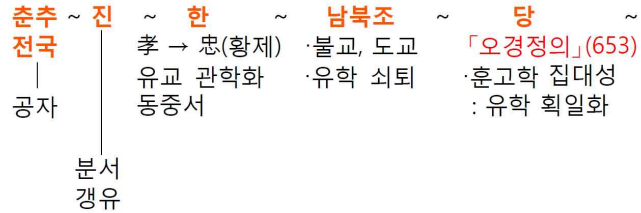


문묘(베트남) 15세기 중엽 레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보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성리학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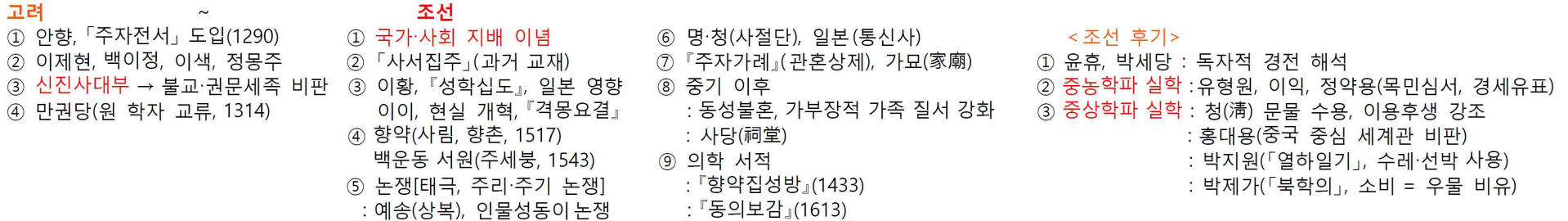
Summary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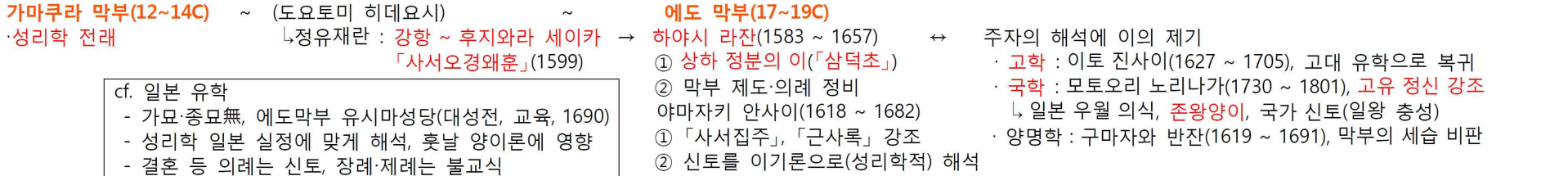
• 중국



• 한반도



• 일본



고려·조선의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 후기 ()에서 전래 ⇨ 신진사대부의 수용 ⇨ 권문세족 비판, 조선 건국 조선의 통치 이념, 국가·사회 의례 논리, 성리학의 이해 수준 심화 사림의 성장 ⇨ 서원과 () 보급

일본의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후기에 전래 () ~ 강항의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 () ⇨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 『 () 』 저술

개념 Check

- ① 당 때에는 『_____』가 편찬되어 훈고학이 집대성되었다.
- ② 남송의 () (1130 ~ 1200)는 우주의 보편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을 집대성하였다.
- ③ 성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수양론으로 거경공리와 ()가 있다.
- ④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과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은 성리학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수용한 ()는 불교와 권문세족의 폐단을 비판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⑥ 조선의 ()은 중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 선조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⑦ 주세붕이 1543년에 세운 () 서원은 1550년 소수 서원으로 사액(賜額)되었다.
- ⑧ 후지와라 세이카는 조선의 강항과 교류하면서 『_____』을 간행하였다.
- ⑨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던 ()은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 ⑩ 일본 사회는 신분을 세습하는 ()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유학 경전을 시험하는 과거제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와 신토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약록 서원의 문묘 대성전〉

▶(기)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3. (두 인물이 숙소에서 대화하는 장면)

△△△: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이래로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아 (가)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오규 소라이가 북고의 학문을 주창하여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 북고의 학문은 주희가 집대성한 (가)을/를 따르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 학문은 주희의 경전 주석에 의거하기보다는 옛 경전을 중시합니다.

○○○: 주희의 주석을 따르지 않고 경전을 읽는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① 일본의 다이호 율령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 ②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③ 남송 이후 『소학』 등의 보급을 통해 확산되었다.
- ④ 조선에서는 서원을 통해 지방 사회에 보급되었다.
- ⑤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에 이용되었다.

▶ 밑줄 친 ‘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승 후지와라 세이카의 추천으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알현하였다. 이후 쇼군에게 경서를 강의하고 막부의 관리로 임용되어 조선의 통신사 응접, 외교 문서 작성, 역사서 편찬 등에 관여하였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비판하고, 일본 성리학의 보급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 ① 『사서집주』를 편찬하였다.
- ②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 ③ 신토를 이기론으로 해석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 ⑤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 그림은 중국 무이산(武夷山)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그린 조선 시대 산수화이다. 남송 시기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가)**은(는) 이곳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저술 및 강학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무이구곡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학문의 본산이자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 ① 『격몽요결』을 편찬하였다.
- ②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였다.
- ④ 치양지와 심즉리를 강조하였다.
- ⑤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로 『대학(大學)』을 강조하였다.